

농생명SW 온실정밀재배시스템 성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사업 통해 기업성장 견인

전주시가 지역 내 SW(소프트웨어)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딸기와 파프리카 등 작물 생육 관리 시스템에 ICT기술을 융합한 '온실정밀재배시스템'을 만든 지역SW기업인 ㈜에스에스엘이 시와 진흥원이 지원하는 '개발형 농생명 SW융합 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의 수혜를 통해 성장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와 진흥원이 지난 2015년부터 2개년 동안 매년 SW제품 상용화 가능 제품에 대해 약 1억7천만원의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8개사의 제품 상용화를 추진해 왔다.

대표적 지원 대상기업 중 하나인 2014년 창업한 ㈜에스에스엘(대표 장영원)의 경우, 지난해 이 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파프리카시험장 내 첨단 유리온실을 설치했다.

또한 김제 딸기재배 시설하우스 테스트베드, 남원 파프리카 재배시설하우스 6개 농가에 '온실정밀재배시스템'을 납품, 시험운영 중에 있다.

이 기술은 온실 내 농작물 재배시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발생량, 광량 등 온실환경정보와 배액정보를 수집해 작물 생육상태를 분석하고,

최적의 재배환경을 농민에게 제공한다.

이 업체는 수혜기업 중 최초로 '도담'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해 '개발형 농생명 SW융합기술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한 국내·외 시장개척 및 마케팅을 준비 중에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TP)의 추천으로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한 '2018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에 이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다.

정원영 ㈜에스에스엘 대표는 "해의 기술과의 기술 수준 격차를 줄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온실 정보를 바탕으로 작물 생장에 필요

한 각종 정보 및 원격 온실설비 제어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생산량 제고 및 실패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농생명 SW융합기술은 우리 지역 ICT산업 분야를 여는 새로운 장이 될과 동시에 첨단 미래기술로 경제 부가가치 창출로 연계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창업 5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통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이 의미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들과 끝까지 동행하여 아이디어부터 개발, 제품상용화, 국내·외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민간업체와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전주시가 일용직과 기간제 근로 등 단기고용중심의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로 했다.

시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센터장 조상진)는 30일 선진기업(대표 박평근), 성현기업(대표 조용욱), 로담물류(대표 오연중) 등 민간업체 3곳과 전주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는 이날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이 어르신들을 고용할 경우 3개월간 약정 임금의 50%(월 최대 45만원), 개인당 135만 원을 기업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9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추가 3

개월의 채용성과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날 협약식에서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하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많다"라며 "초고령시대에 부응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순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리고 전문기업의 특색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해, 지역기업과 지역 어르신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여성 팬에게 사인

30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전주종합경기장에서 공개 연습을 하기 전 오프트레이닝 행사를 가진 가운데 이형용 선수가 여성 팬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융합 교육 열어

전주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공동체 분야 활동가들의 전문역량 강화에 나섰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매주 화요일, 사회적경제·도시재생·공동체 분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및 의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1개월 과정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융합 교육'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총 6회 과정으로 이뤄진 이번 융합 교육에는 총 64명의 교육생이 참여했으며 4회 이상 참석한 수료생에게는 교육 수료증이 발급될 예정이다.

교육은 첫날 LH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강사의 '도시재생의 개념과 역

사'를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매 주 △지역자산화와 시민자산화(사)나눔과미래(전은호) △마을재생법인과 마을관리기업(시흥도시재생지원센터 김상진)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아이부키주식회사 이광서)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전주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임경수)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과제(도시연대정책연구원 김은희) 등 활동가들의 관심이 높은 주제로 진행됐다.

또한, 이번 융합교육에서는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도시재생 관련 주요 의제를 학습하고, 도시재생의 가능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효철 기자

전주역 앞 활성화 위한 주민의견수렴 워크숍

전주의 첫인상인 전주역 앞 첫마중길 상인들과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첫마중길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주시와 전주도시혁신센터는 30일 2018년 첫마중길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첫마중길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의 6회차 프로그램으로 의견수렴 워크숍을 진행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은 도시재생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주도시혁신센터와 함께 직접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참여주민들이 앞서 뉴딜사업 대상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 이후 그간 검토하여 구체화한 사업계획 초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전주시의 시설 정비 방안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공유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사업 대상지에 대한 특성을 적극 이해하고, 주민주도 사업과 협의과정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가며 사업 내용 토론과 사업추진의 어려움, 진행과정을 함께하며 정책방향을 적극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2018 전주독서대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독서체험부스 운영자 모집 심사 후 20개 단체 선정 · 각각 50만원씩 지원키로

대한민국 책의 도시인 전주시가 시민, 독서관련 단체들과 오는 9월 전주에서 열리는 '2018 전주독서대전'을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1일부터 12일까지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www.jbook.kr)를 통해 오는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주한복문화관 일원에서 개최하는 '2018 전주독서대전' 독서체험부스를 운영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2018 전주독서대전은 시가 지난해 열린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발판으로 준비한 행사로, 지역 출판계와 도서관계, 문화계가 참여하는 전주를 대표하는 전국 규모의 책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독서체험부스 운영 참가자격은 책을 매개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북지역 도서관과 공·사립 작은도서관, 문

화의 집,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독서동아리, 대학교 관련학과 등이다.

시는 신청 단체를 대상으로 △행사 적합성 △대중성 △창의성 △흥미성 등 4가지 기준으로 심사해 20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단체는 오는 6월 14일 전주독서대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에는 각각 독서체험부스운영에 필요한 강사비와 재료비,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원씩 지원된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2018 전주독서대전은 시민이 책 축제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책 관련 단체들 간의 영역별 교류를 확대하고, 양질의 독서체험 부스를 운영해 전국 최고의 독서문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국가대표팀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

대한민국 VS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축구 A매치 경기 지방도시 최초 월드컵 출정식도 함께 진행돼 관심 고조 전주시, 불편 해소 위한 축구 A매치 특별 교통대책 추진

전주시가 지방도시 최초로 열리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출정식에 대비해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에서 열리는 마지막 국가대표 평가전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이 오는 6월 1일 오후 8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경기는 지난 2013년 크로아티아와의 A매치 경기 이후 전주에서 5년 만에 열리는 경기이자 러시아 월드컵을 대비한 마지막 평가전으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러시아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고 격려하는 출정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손흥민과 기성용, 이승우 등 해외선수들은 물론, 전주를 연고로 한 전북현대모터스FC의 김신욱과 이재성, 김진수, 이용 등 국내파 선수 등 월드컵 태극전사들 총출동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경기당일 전주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많은 관중이 몰릴 것으로 판단하

고, 관중수송 대책 마련과 주차문제 해소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는 관중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주공업고등학교와 반월초등학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임시주차장 4곳을 확보했다.

또한, 경기 당일에는 대한축구협회 주관으로 오후 5시부터 전주종합경기장과 전주화산체육관, 전북도청, 전주공고 등 4곳에서 호남제일문까지 셔틀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셔틀버스는 경기 종료 후에도 관람객의 귀가를 돕게 된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대한민국 축구 도시인 전주에서 시민들이 국가대표팀과 소통하고,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의 기량을 최종 점검할 수 있는 수준 높은 A매치 경기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전주를 축구도시로 만든 시민들의 축구열기와 성원에 보답하고, 쾌적한 경기 관람을 위해 교통불편을 해소하는 등 경기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

